

완도 문화관광해설사, SNS 관광홍보 활동비 받는다

SNS 통해 관광홍보 실시하면 활동비 지급

해설 활동 있어야 지급 가능한 실비 개념

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해설사들이 SNS를 통해 관광홍보를 실시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여 눈

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문화관광 해설 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나 상황이 장

기화됨에 따라 해설사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SNS 활동을 통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부 직립 자리사업의 사회봉사 / 복지형 일자리로 급여가 아닌 활동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휴업 수당 개념의 활동비 지급은 불가해 해설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없다. 완도군에서 완도읍 등 4개 읍면에서 13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이며 1일 5시간 이상 활동 시 7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군은 SNS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완도의 숨은 명소 찾아내기, 독특한 음식·숙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내용과 사진을

제출하면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한다. SNS 활동은 주 3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장소와 유사한 콘텐츠는 인정하지 않는다. 활동 자료는 군 대표 SNS를 통해 홍보하고 향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봄 축제가 취소되고 상춘객들의 발길이 묶여있는 시기에 SNS를 통해 관광 욕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관광 분야 종사자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시, 6월부터 버스정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 제공



앞으로 목포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제공하기 앞으로 약 한 달여간 무

선접속장치 및 회선 공사를 마친 뒤 5월말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설치장소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인근, 근대역사의 거리를 비롯한 완도심 일원, 평화광장, 갯바위 문화의 거리, 옥암 신도심지역 등으로 버스정류장 안내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161개소에 구축된다. 시설비는 총 4억9천200만원으로 과학기술정보부와 통신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회선료는 연간 약 6천400만원으로 목포시가 75%, 전남도가 25%를 지원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안내기를 통해 각종 생활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앞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과 시민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진도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실외 체육시설 등 개방

진도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실외 체육시설 등을 지난 23일 부터 개방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중단해 왔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실외시설 또는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부터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국공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 생활체육시설 16개소와 실내 시설이지만 방문객 분산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미술관과 찰마도서관 등 11개소가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주기적인 시설방역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공이용 시설을 개방 하였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개



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실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 까지 자살예방 홍보를 시작으로 자살 고위험 대상과 장소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 비해 3~5월은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사회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9개 읍·면 11곳, 자살 고위험 장소 2

곳에 자살예방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며, 관내 전광판에 자살예방 영상을 송출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새롭게 개통한 철산대교에는 자살예방 로고젝터를 설치하였으며 농약 안전보관함 관리사업과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 캠페인을 통해 자살위험 환경을 개선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

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몸은 잠시 멀리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해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며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 자살률 감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오는 27일부터 발급 가능

함평군은 오는 27일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첫 시행됐다. 올해 군은 총사업비 6억 1740만원을 투입해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지역 여성농어업인 3천87명에

게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한다. 카드 발급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연말까지 유효업소를 제외한 전국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상사화 꽃길 조성

영암군은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주변으로 상사화 군락지 조성하고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목재문화체험장에도 상사화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은 월출산 아래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21,954㎡의 면적으로 조성,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관과 한옥기능 교육관이 설치되어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며 목재

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공간인 목재문화체험장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히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 및 화단을 중심으로 상사화 5만여본을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서치 아웃
2관	데드풀, 주디, 라라걸
3관	더 터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서치 아웃
4관	1917
5관	1917, 다크 워터스
6관	로건, 비밀정보원, 신과 나
7관	인비저블맨
8관	라라랜드, 생일
9관	라라랜드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LOTTE CINEMA 광주(백화점)

4관	오픈 더 도어
5관	원데이, 라라랜드, n번째 이별중
6관	라라랜드, 1917, 서치 아웃

문의전화 1544-88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대인동, 롯데백화점 9층)